



### "개나리 방긋"

셋노란 개나리의 눈부신 향연. 학내 곳곳에 피어난 꽃망울에서 봄의 정치가 물씬 느껴진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 등록금 인상률 2% 하향 조정 합의

### 개인별 환불 1% ... 나머지 1%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집행

8.5% 인상됐던 이번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2%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총학생회(회장=정성진·경영4, 이하 총학)와 학교 측 관계자는 지난 7일 협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 8.5% 중 2%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조정되는 2% 등록금 중 1%는 학생 개인별로 환불하고, 나머지 1%는 총학생회가 제안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집행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 후 임시 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협상에 관해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가 제안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2006학년도 2학기부터 '강

좌별 수석장학제도' 신설 및 시행 △2학기부터 학과의 '학년별 대표 장학'을 현행 대비 100%인상 △오는 26일부터 학부 재학생 전원에게 '100주년 USB메모리' 지급 △여름방학 중 교내 모든 강의실에 대한 전면보수 시행 △학생자치기구 주최 각종행사 적극 지원 및 동아리 지원금 25%인상 △기숙사 및 신공학관 건립 사업 추진 △등록금과 학생복지 관련 원탁 테이블 지속적 유지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행이 확정된 '강좌별 수석장학 제도'는 1학기 중 세부안을 마련,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좌별 장학금은 한 강좌 당 10만원으로 장학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장학중복수혜 제

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름방학 중 교내 모든 강의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구조변경, 첨단장비 확충, 질판·조명 교체 등)를 시행하되,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홍관 및 학림관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학생자치기구에서 주최하는 대동제, 백상제전, 명사초청특강, 월드컵 응원전, 취업특강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학교 측이 적극지원 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와 총학생회 측이 서로 양보해서 점거와 투쟁 없이 등록금 문제를 협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우영진(기계4) 부총학생회장은 "환불 비용을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집행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쓰이는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하기로 학교 측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3차 원탁테이블에서 학교 측에 요구했던 단위 학자요 구안도 문제현황을 파악하고 진행해 나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상률 조정분에 대한 최종 승인과 환불조치 시점은 4월 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우리학교 기초과학연구사업 과제당 논문 게재수 1위

우리학교가 기초과학연구사업 과제당 논문 게재수에서 전체 23.89편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과기부와 한국과학재단이 발표한 20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비 10억당 논문생산성이 76.03편으로 경북대, 부산대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과제당 연구 성과 논문 게재 수에서는 23.89편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으며, 과제당 SCI논문 게재수에서도 19.33편으로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분석은 2004년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으로 1,788억원을 투입한 협약과제 91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교내 개최 지원 접수

#### 신임교원 연구정착비 접수 12일까지

연구처(처장=조성규·산업시스템공학)는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100주년을 홍보하고 학술정보 교류 및 연구발표 활동을 지원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술대회 교내 개최 지원 특별사업을 실시한다. 대회 지원은 현행 학술대회 교내개최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이뤄지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횟수는 학회 당 연 1회이며 자격기준 심사를 거쳐 △국제학술대회=최저 200만 원~최고 600만원 이내 △국내학술대회=최저 100만원~최고 250만원 이내로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액을 확정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요건은 △학술대회 논문집 첫 쪽 하단에 반드시 감사의 글 명기 △팸플렛 및 현수막 문구서투에 기념 엠블렘 및 '동국 10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를 학술대회명 글자와 동일한 크기로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연구처 연구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2006학년도에 임용된 신규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신청을 접수한다. 이과·공과분야 교원(SCI 논문지원자)의 경우 500만원, 인문사회 계열 교원의 경우에는 300만원이 지원되고 신청은 연구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 제37회 동국인 등산대회 오는 14일 열려

4·19혁명 기념 제37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14일)에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해 참가자 전원에게 힐색을 지급한다.

모든 동국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9시에 국립4·19묘지 광장에서 집결한다. 이날은 국립4·19묘지 기념탑에서 오전 10시부터 4·19혁명 기념 추모식을 20분 여 진행하고, 개회식 후 바로 출발한다.

학교 또는 학부,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4인 1조로 팀을 짤 수 있고, 학교 단체팀은 40명, 동아리 단체팀은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4인 1조 재학생팀의 경우, 해외연수계획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학생복지실에 오늘까지 제출하면 심사접수에 반영해 '세계로 가는 동국팀' 총 9개팀을 선발해 해외 연수 비용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천 문화생활팀'은 구성원에 관계없이 총 8개 팀을 선발해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증정한다. 단체팀도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5팀을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내일 오후 5시까지이며, 학교단체팀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 4인 1조팀과 동아리단체팀은 학생복지실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환경 보호 △단결성 및 협동성 △복합 통일성 △개인 및 학과, 단체의 차별적 홍보 △참가 인원 파악이다.

### 화학·컴퓨터공학과 장학금 수여

지난 5일 화학과 문현실에서 2006학년도 1학기 박관호 교수 제자사랑장학 수여식이 있었다. 장학기금은 박관호 명예교수가 우리학교 기초과학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했으며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학과 △생물학과 대학원생 중에서 학업성적과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한다.

△김완중(유기합성·석사과정) △이학근(무기화학·석사과정) △이현근(위상수학·석사과정) △심대수(위상수학·석사과정) △곽동욱(고체물리학·석사과정) △이재진(분자생물학·박사과정)이 각각 200만원을 수여받았다.

한편 지난 달 31일 원홍관(E102)에서 컴퓨터공학과 동창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컴퓨터공학과 동창회에서는 우리학교 개교 백주년과 컴퓨터공학과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장학회를 설립했다.

장학생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중에서 성적과 학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으며, △장두남(컴공4) 군, 이홍길(컴공3) 군, 우재민(컴공2) 양에게 각각 150만원이 지급되었다.

앞으로 매 학기 후배사랑 장학금이 지급되며 2학기에도 장학생 3명을 선발한다.

### 동국 독서 퀴즈 페스티벌 다음달 11일 개최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 이하 중도)은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3회 동국 독서 퀴즈 페스티벌을 다음달 11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4인 1조로 구성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학부생)이며 참가인원은 4인 1조 16팀이다.

문제는 지정도서인 △불교=불타의 세계 △인문=삼국유사 △사회=블루오션전략 △자연=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에서 권당 20문제, 교사 및 도서관 이용 20문제 등 총 100문항을 4지선다형의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우승팀(4인 1조 1팀)=3백만원 △준우승팀(4인 1조 1팀)=2백만원 △장려상팀(4인 1조 2팀)=각 1백만원 △행운상팀(4인 1조 1팀)=1백만원이 수여된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접수(marsha00@dongguk.edu)와 방문접수(중도 자연과학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 예술대 학생회장 이채신 후보 당선

예술대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결과, 이채신(불교미술3) 후보가 전체 투표수 385표(투표율 53%)중 찬성 313표, 반대 36표, 무효표 9표를 얻어 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편 사과대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동국관 로비에서 사과대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했지만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문성훈(행정3) 사과대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쯤 이번 선거에 대한 대안을 최종 결정 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인터뷰 2면

### 금주의 동국인

#### 학교사랑을 '말'하는 이재용 동문



매일 오전 8시, TV 브라운관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아주 특별한 아침'을 이야기 하는 사람. 바로 우리학교 수학교육학과를 88년도에 졸업한 아나운서, 이재용 동문이다. 청바지에 셔츠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그가 진행하는 TV프로그램만큼이나 편안한 인상이었다.

이 동문은 다음 달 8일 개교기념일에 열리는 100

주년 기념식의 사회를 흔쾌히 맡았다고 한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으니, 졸업한 선배들이라면 당연히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이 동문.

"꼭 이맘 때 이른 아침, 학교를 오르다보면 꽃 냄새가 솔솔 나면서 반야심경이 잔잔히 들려왔다"며 "그 때의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정서를 키워줬기 때문에, 학교에 다시 찾아가면 언제나 그때의 자신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 항상 우리학교가 고맙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학교의 좋은 소식을 더 널리 알리고, 학교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모교 출신이 언론계에 많이 들어왔으면 한다고.

교직을 꿈꾸고 수학교육학과에 입학한 그였지만, 재학 시절 DUBS 아나운서 활동과 교생실습을 거치고 자신의 적성이 '말하는 것', 즉 '아나운서'였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동문은 "사실 전공수업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고 웃으며 "교양분야 들은 다른 학과의 수업이 오히려 흥미도, 학점도 높았다"고 말한다. "우리학교에는 타대학에는 없는 학과가 많아 그만큼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하는 이 동문은 재학시절 수강했던 과목 이름을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다.

그런 이 동문은 후배학생들이 편한 사고를 갖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전공에만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들어 보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동문.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학교의 장점을 이용해 여기저기 다니며 주위를 둘러보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 사회인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이 동문에게서 학교와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작은 응달샘 졸졸졸

새 한 마리 푸드득 숲에서 날고

돌맹이 도그르르

작은 샘 창해 되니 어언 100년

작은 새 대붕되어 창공을 날고

돌맹이 청태 떠어 거석이여라

뚜껑버선 헤어지게 진리탐구 뿐

너와 나 하나 되어 세상의 목탁 되니

영원히 빛나리 코끼리 응혼이여!



최현각  
불교대 선행과 교수



####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동국 가족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획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인략 **원고 마감** 2006년 4월 30일까지(1차 마감)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드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관주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골라 총 상금 100만원을 드립니다.(감동상 50만원, 자랑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8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언론사준비반 체계적 운영 안돼

## 공부 공간 제공 후 “모르쇠” ... 자율스터디로 운영 시험 준비·작문 지도 강화 등 실질적 지원 필요

언론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각 대학에서는 그 대학 출신의 언론인 육성을 위해 언론고시반에 지원을 늘리고 있다. 우리학교 언론사준비반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할 뿐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학교 언론사준비반의 경우 1년에 18명을 시험을 통해 선발해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실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언론사준비반에서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학년과 졸업생을 위주로 꾸려져 있다. 언론사 준비반은 계산고시반과 사에서 사법고시반, 행정고시반과 함께 관리되고 있으며, 언론사 시험을 대비한 자체 단계별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계산고시학사 이상동 지도위원은 “언론사준비반은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기사 스크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언론사준비반이 개설된 지 3년밖에 공간을 제공할 뿐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언론사준비반 문제해결의 대안과 관련해 신문방송학과 김관규 교수는 “최근 언론사 채용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단계와 제작전문능력 향상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하게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언론사 준비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작문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별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방법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언론사준비반에서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최모 군은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인 글쓰기 지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조금과 외부수강증을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대학에서 운영하는 언론사 시험반의 경우를 알아보았다. 경희대의 경우, 언론고시반을 정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약 9:1의 경쟁률 을 두고 선발된 학생 20여명은 ‘아침에 꼭 정해놓은 시간에 등교해야한다’는 등 자체적으로 만든 엄격한 규칙에 따라 주일교수 1명과 함께 공부한다.

개인학습을 위한 독서실과, 그룹 학습을 위한 세미나실이 경희대 언론고시반의 생활터이다. 여기에는 1년에 약 1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외부강사

초청 등 특별한 행사를 열기도 한다. 한편 중앙대는 더욱 심화된 학습과정을 위해 동일계열인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언론고시반의 한 학생은 “학교의 지원이 열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언론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언론사 취업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언론사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사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술대 학생회장 당선자 인터뷰

## “학과 특성 아우르는 열린 예술대 만들것”



이재신(불교미술3)

- 당선소감은.  
= 짧은 기간동안 선거운동을 충실히 하지 못해 아직도 당선에 실감나지 않는다.  
예술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었는데, 그동안 비대위 체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단체에 비해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다른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대 학생회를 만들고자 출마했는데 당선되어 기쁘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예술대는 학생수가 적은 만큼 단합이 잘 될 수도, 흑백논리에 치우칠 수도 있는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세운 점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리! 하나! 예술대!로 정했듯이 무엇보다도 학생들 간 상호협조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 학과별 특성이 강한 미술학부, 연극·영상학부, 문예창작학과를 아우를 수 있는 예술대를 만들고 싶다. 또한 고충 신고함을 만들고 학생회 간부형식의 상담자를 두어 일주일에 한번씩 열어볼 계획이다.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바람을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밖에도 야간작업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서 여자 사위실 신설과 매년 계획에서 그쳤던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도 애썼다.  
- 예술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항상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학생회장이 될 것이다.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내 생각과 예술대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시켜 뜻한 바를 이루어 내겠다.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바가 나와 같다면 여기에 잘 따라주길 바란다. 또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술인에 대한 본모습을 잃지 않는 예술대 학생들이 됐으면 한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회전무대

### 밀려야 본전

○...복수전공은 우선 신청하고 보는 것이라는데.  
알아본 즉,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실제로 이수한 학생은 반도 되지 않는다고.  
현 제도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규정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계획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2학년 때 전공 세 개, 졸업할 땐 전공 하나(!)”

### 속수무책

○...중앙도서관은 이름없는 작가들을 키우고 있다는데.  
알아본 즉, 학생들이 토의·자격을 관련 서적들을 마치 자기 책인양 낙서하며 사용해 책 훼손이 심한데, 중앙도서관은 훼손방지문구가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책 훼손을 막기 위한 노력은 엿볼 수 있지만, 훼손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헌책방 니들이는 중앙도서관으로(!)”

### 수취인불명

○...학생들은 학교에 신상정보 알리기를 꺼린다는데.  
학교에서 이번 학기 미등록자의 자택에 제적 예고 통지장을 했는데 200여 통 중 5분의 1 가량의 편지가 주소변경으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학교의 중요한 소식을 빠뜨리지 않고 알 수 있게, 주소가 바뀌면 그때 그 때 재학생서비스에 변경사항을 알려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나의 이사를 학교에게 알리지 마라(!)”

### 역성차별

○...우리학교 남학생들은 편히 쉬고 싶으면 여장을 해야만 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여학생만 쓸 수 있는 ‘여학생휴게실’은 있지만 ‘남학생휴게실’은 없다고.  
이성을 의식하지 않고 편히 쉬 수 있는 공간이 남과 여,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남학생휴게실’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나는 쉬 수 없다. 고로 나는 남학생이다(!)”

## 중문 전면 차량통제·통행제한

학술관 전면 옥외주차장에 주차가 통제되고 향후 통행이 제한된다. 이는 중구청이 ‘동국대학교 앞 옹벽주변 녹화정비공사’를 시행해 이뤄지는 것이다.

공사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간 시행되며 △동대입구역부터 학술관 전면 옥외주차장 △모자란 측면 엠베서더측 도로에서 노후한 해화문 정면 옹벽정비 및 주변 녹화사업이 진행된다.



“우리 영화 멋지네” ... 2006 춘무로 열린 영화 축전 '이' 지난 6일부터 9일간 명보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로 우리학교 영화학의 과거·현재·미래를 재조명해 보는 기회가 됐다. 사진은 6일 '홀리데이'를 감상하는 학생들의 모습.

## 새내기 농구대회 체교과 우수

지난 달 2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열린 새내기 농구대회에서 체육교육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체육교육과는 기계공학과와의 결승전에서 승리해 1등을 차지했으며, 2등은 기계공학과가, 3등은 경영학부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1, 2, 3등을 차지한 각 학과에는 △1등=컴퓨터 △2등=TV △3등=생·운동기를 수여했으며, 모든 참가팀에는 기념티 8장과 농구공을 지급했다.

## 동약로

### 기약없는 약속

“몇 달 전에 신청한 책이 아직도 서가에 비치되지 않았네.”  
“책을 새로 인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람.”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 이하 중도) 홈페이지의 My Library 자료구입신청 메뉴에서는 학생들이 개인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도서가 서가에 비치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30여권의 도서를 신청하면 약 90여권이 책이 구입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2005년 이용학생=891명 △2005년 신청도서=약 4600여권 △2006년 3월 주문도서=579권 △2006년 3월 입수도서=569권에 이르는 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도서가 입수되기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2주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

난 3월 한 달간 총 482권의 도서가 주문되었으나 정리중인 도서를 포함하여 구입된 도서는 현재 184권뿐이다. 도서구입은 △도서신청 △자료취합 △도서선정위원회 심의 △수서분야 목록인제 △도서주문 △도서입수 △자료등록 △정리 △열람 절차 순으로, 매주 월요일 담당자가 자료를 취합하고 신청도서를 가려내가기까지 최대 일주일 이 걸리게 된다.

학생들은 “몇 개월이 넘어서 도서가 비치되면 시중에서는 개정판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이 늦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는다. 기다릴 수 없어 결국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윤주영 과장은 “절대적인 물량이 많이 늘어 지체되는 면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희망도서 입수에 관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며 “정해진 할인율(지난해 기준 25%)이하로는 구입이 불가능해서 계약을 받는데, 할인율이 10%로만 낮춰져서 구매를 털 받는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 및 정해진 할인율을 낮추는 등 신청도서 비치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모색에 힘써 학생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길 기대해 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동국튜터링’, ‘Do Dream 학습 동아리’ 공모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는 2006학년도 1학기 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동국 튜터링’, ‘Do Dream 학습 동아리’를 공모합니다. 혼자 푸는 꿈보다는 여럿이 같이 푸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학생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목적**  
가. 협동학습을 통한 창의적 학습 능력 향상  
나. 선후배, 동년배 간의 학문적 유대감 형성  
다. 자기 주도형 학습자 양성
- 대상내역**  
① 최우수팀 ₩300,000(1팀)  
② 우수팀 ₩200,000(1팀)  
③ 장려팀 ₩100,000(2팀)
- 응모방법**  
가. ‘동국 튜터링’, ‘Do Dream 학습 동아리’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응모  
1) 동국튜터링  
(가) 튜터 : 본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3~4학년)또는 대학원생으로 해당 교과목 성적이 A학점인 자  
(나) 튜티 : 본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다) 인원구성 : 4~5명(튜터 1인 포함)  
2) Do Dream 학습 동아리  
(가) 같은 과나 여러 학과의 혼합 집단도 가능  
(나) 인원구성 : 본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4~5명(리더 1인 포함)  
\*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학습동아리(스터디 그룹)도 지원 가능  
나. ‘동국 튜터링’, ‘Do Dream 학습 동아리’ 참가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한 후 교수학습개발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다. 대상과목 : 2006학년도 1학기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
- 접수기간** : 4월 10일(월) ~ 4월 14일(금)
- 신청필수** : 20팀 이내 (신청팀에게는 최초 선정시 팀원 모두에게 문화상품권(1만원) 지급)
- 선정일 발표** : 4월 19일(수) (본교 홈페이지 공지)
- 선정기준**  
가. 참가신청서 상의 운영계획 및 참여 동기가 건전하고 충실한 팀  
나. 학습활동 과목과 학습 교재가 일관성이 있는 팀  
다. 학습계획서 상의 학습 목표가 명확하고 세밀한 팀  
라. 학습 목표와 주저할 학습계획이 일치하는 팀  
마. 위 선정기준과 함께 단체명, 학과명, 학년별 본모습 고려함
- 접수 및 문의처** :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1 ~ 4)  
\* 중앙도서관 출입문 좌측 상목원 방향 위치

교수 학습 개발 센터

## 4·19혁명 기념 제37회 동국인 등산대회

- 등산도 하고 해외연수도 가고! -

1. 일 시 : 2006년 4월 14일(금) 09:00~15:00  
2. 장 소 : 국립 4·19묘지(추모식), 북한산(등산대회)  
\* 집결 : 오전 9시 00분까지 국립 4·19묘지 내 광장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3. 참가대상 : 모든 동국가족

4. 행사일정

행사내용	장소	시간	유의사항
4·19혁명기념 추모식	국립4·19묘지 내 기념탑	추모식 : 10:00~10:20	09:50분 참가자 전원 기념탑 앞으로 이동하여 합동분향
개회식 및 출발	국립4·19묘지 내 광장	개회식 : 10:20~10:30 출 발 : 10:30부터	시간 엄수
중식 및 하산	대동문	중 식 : 12:00~13:30 하 산 : 13:30부터	지나친 음주 절대 삼가, 쓰레기 개인별 수거 후 하산

5. 팀 구성

가. 4인 1조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재학생팀 : 해외연수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제출 - 심사점수 반영)  
\* 해외연수 계획서 접수 : 4. 3(월) ~ 4. 10(월), 본관 3층 학생복지실  
나. 학과 단체팀 : 40명 이상으로 구성  
다. 동아리 단체팀 : 15명 이상으로 구성

6. 시 상 :  
가. 4인 1조팀  
1) 세계로 가는 동국팀 : 총 9개 재학생팀 선발 (해외연수 비용 200만원 지원)  
2) 알찬 문화생활팀 : 총 8개팀 선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증정)  
나. 단체팀 :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5팀

7. 접수기간 : 2006. 4. 3(월) ~ 4. 11(화) 09:00 ~ 17:00.

8. 접수처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행정실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9. 공지사항

가. 추모식 및 등산대회 행사 시 건전한 자세로 임하며, 4·19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함.  
나. 4·19혁명 기념 추모식은 행사 참가자 전원의 합동 분향으로 진행함.  
다.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라. 등산대회 시 출발, 중식시간 등을 엄수함.  
마. 도시락과 쓰레기 봉투는 각자 준비  
바. 시상식은 별도로 진행되며 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됩니다.  
사. 참가자에게는 건학 100주년 기념품(임색)이 지급됩니다.

\* 4·19혁명 기념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 226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 대학신문의 위기와 역할

#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조화로 변화에 대응해야

대학에 민주화 열풍이 불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대학신문은 대학인들에게 중요한 의사 표출의 통로였고 영향력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 대학기자는 그 대학 내에서만큼은 기성 기자에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다고 들었다.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60년대도 대학신문은 대학 여론의 중요한 선도자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학 언론 기자 출신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평가도 호의적이어서 대학신문 기자들이 전공(?)을 살려 필자가 근무했던 언론사를 비롯해 언론사나 기업체 홍보실에 진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 계속되는 대학신문 위기론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신문 위기론이 가끔씩 기성 매체에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대학신문이 학생기자를 구하지 못해 애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학 언론 특히 대학신문의 퇴조에는 취입난과 학술·사상 등 무거운 주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외면이 한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성을 중시하는 요즘 대학생들의 성향과 웹진과 인터넷신문 등의 영향도 클 것으로 짐작된다. 학과별로 또는 대학별로 만들어지는 웹진이나 인터넷신문은 맞춤형 실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매체로서의 구실을 하



논단

정 남 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경제 68졸

기 때문에 대학신문보다 더 많이 이용된다는 얘기가.

이런 세태에 대응해 최근 들어 대학신문은 '병역생활 마치는 방법' '학교 근처 맛집' 등과 같은 실용 정보와 좀 딸랑 딸랑한 문화기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신문이 과거와 같은 대학내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집단화로 분화되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닌, 취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요즘 대학생들의 입맛을 대학신문이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현재 기성 신문들도 위기론은 얘기하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뉴미디어 등 타 매체와의 경쟁과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저하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대학신문의 해법 역시 기성 신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이신문만으로 승부하던, 대학을 대표하는 매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에 적극 대응해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 내 다른 웹진이나 소규모신문보다 품격이 높은 기사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 공론장으로서의 대학신문

대학 내에는 학생 뿐 아니라 교수, 행정직 등 크게 보면 세 집단이 동거하고 있다. 이들 세 집단을 모두 아우르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대학신문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은 물론 공론장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학내 다른 매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학내

행정업무를 비롯한 언론 본연의 임무인 환경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는 자세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변화 통해 현 위기 극복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want) 기사와 필요한(need) 기사를 적절히 배분해 실어야 할 것이다. 4월 초 기업체 인사담당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신입사원들에 대한 불만은 "전공 전문지식 부족(66.1%)과 문제 해결능력 부족(65.0%)"을 지적했다. 이는 대학신문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need) 기사를 적극 개발해 이끌어 가야 함을 웅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의 취입난 등을 감안해 취입 관련 뉴스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즉,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이 대학신문의 위기라면 이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는 뉴미디어에 대한 대학신문의 대응과 대학인(학생, 교직원)을 위한 공론장 역할, 필요한 전문지식(학술·사상) 제공 등에 대한 요구로 해석하고 싶다.

떠나간 독자를 다시 붙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학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신뢰 속에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대학신문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생각한다.

### 사설

## 언론인 육성 제도, 대개혁 필요

언론사에 취업하는 졸업생, 동문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의 기자·프로듀서직의 경우, 최근 5년 누적 통계가 한 자리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 동문이 전무하게 되는 참담한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재학생들 개개인에게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의 책무도 막중하다.

학교는 백주년을 맞아 새로운 백년을 향한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발전의 꿈을 보여주는 게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비전들이 그냥 장밋빛 페트릭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려는 실천의지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들도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언론사 취업 문제가 바로 이 경우이다. 졸업생들의 언론사 진출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일반 직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참에 우리학교의 언론사 준비반 운영을 전폭적으로 개혁했으면 한다. 언론사 준비반은 행정고시반이나 사법고시반에 비해 그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1년 예산이 1천만 원이다. 운영도 부실하다.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일정 부분 지급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교육과정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몇몇 교수들이 작문지도 하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지속적인 교과과정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도 아쉽기만 하다.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않으면서 천문학적 경쟁률을 기록하는 언론사에 취업하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애가 타는 건 신문방송 학과만이 아니다. 부속기관인 신문사와 방송국도 특기적성이나 경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업무량이 많다보니 취업에 필요한 점수(?)가 모자란다.

사실 언론사 취업은 개개인의 재능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원하는 학생은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보다 많은 취업 기회가 생기게 되리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바람은 소극적 희망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 2단계 BK21사업 막바지 경쟁 치열

## 매년 2900억 지원 ... 공정한 평가 이뤄져야

전국의 대학들이 2단계 BK(두뇌한국)21사업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단계 BK21사업은 △국제적 비교우위 확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분야 집중 지원 △석·박사생 및 신진연구인력에게 안정적 연구기반 제공 △대학의 교육, 연구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연계 지원 △산학협동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해마다 2,900억 원씩 7년 간 2조 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에 인문사회,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 92개 대학 969개 사업단이 신청서를 냈다.

우리학교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단장=조용길·불교학)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의 화합과 세계화를 위한 한국어문학 핵심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황종연·국어국문학) △차세대 디지털영상 고급인력양성 산학공동사업단(단장=조종홍·영화영상학) △인공지능영상콘텐츠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조형진·멀티미디어학)의 4개 사업단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동생명공학 교육연구단(단장=박정국·생명화학공학)의 1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또한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분야에서 동국글로벌 경영전문인력 육성사업단(단장=한진수·회계학)이 신청했다.

최근 교육부는 사업단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BK21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단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하려는 각 대학 관계자들의 방문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2단계 BK21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신청 전, 구조조정은 물론 자체지원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들이 BK21에 열을 높이는 이유는 사업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한 사업단이 받을 수 있는 BK21 자금과 기업체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줄어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산학협력 관계를 맺는 기업체가 없어 학생들의 취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볼 수 있다.

당초 인문사회 영역은 지난 달 17일에, 과학기술 영역은 지난 달 21일에 선정발표가 예정되었으나, 연기돼 이달 중순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각 대학들이 연

구실적을 변칙적으로 부풀리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많아 정밀조사를 하는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결과이다.

이에 BK21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신청서 공개 결과 여러 사업단에서 정량평가 항목의 오기재 사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선정평가 과정에서도 평가위원들이 많은 오기재 사례들을 지적해,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재사정한 결과 선정 발표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BK21사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업이다.

막대한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관, 부편집장: 정길상, 주편집장: 김지혜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 2006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특별전형)

- 모집과정 및 학과: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 모집인원: 각 학과별 약간 명
- 지원자격: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6년 8월 취득예정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석·박사과정 모두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
원서교부	2006. 4. 3(월) ~ 4. 21(금)	가. 장소: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www.dongguk.edu/gs) 나. 서울캠퍼스: 학술관 1층 대학원 행정지원실 다. 경주캠퍼스: 진흥관 1층 사회과학대학원 행정지원실
원서접수	1. 인터넷접수: 2006. 4. 13(목) ~ 4.19(수) 17:00까지 (www.unsyp.com-동국대학교 대학원) 2. 방문접수: 2006. 4. 18(화) ~ 4. 21(금) 17:00까지	
전형일시 및 장소	2006. 4. 28(토)	① 10:00시부터 (면접은 학과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 ② 시험전일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06. 5. 17(수) 14:00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www.dongguk.edu/gs  
TEL. 02-2260-3094~5, 3116 FAX. 02-2260-3685

### 정각원 행사 안내

- 1. 건학 100주년 맞이 교. 직원 법회 실시(4월 월례법회)**  
가. 일시: 2006년 4월 11일(화) 16:00~  
나. 장소: 정각원 법당  
다. 법사: 진월스님(정각원장)
- 2. 수계대법회 및 실천 강령 선포식**  
가. 일시: 4월 28일(금) 16:00  
나. 계사: 진월스님(정각원장)  
다. 장소: 본교 중앙당  
라. 신청: 3월 27일(월) ~ 4월 21일(금)  
마. 접수처: 정각원 사무실
- 3. 연등 점등식 및 탑돌이**  
가. 일시: 4월 28일(화) 18:00  
나. 장소: 본교 불상 앞  
다. 증명법사: 현해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라. 참석대상: 교직원, 학생, 일반인
- 4.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범모식**  
가. 일시: 5월 5일(금) 08:30  
나. 법사: 진월스님(정각원장)  
다. 장소: 정각원 법당
- 5. 정각원장 진월스님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항주 세계불교포럼에 참석**

### 건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주제: DMZ 생태·평화

- 일시: 2006년 5월 2일(화) - 4일(목)
- 장소: 타워호텔 렉스룸

□ 5월 2일(화) □

- OPENING (14:00~14:40)  
개회사: 홍기삼 총장  
축사: 이종석 통일부장관
- 제1주제: 세계사와 DMZ-21세기를 향하여 (15:00~18:00)  
발표 1.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정치경제사: 김학준(동아일보 사장)  
발표 2. 동북아 강대국정치와 한반도 평화: 최이리루(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발표 3. DMZ, 생명과 삶의 공간: 김계중(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토론자: 이안범(한국학중앙연구원), 심지연(경남대), 이도원(서울대)
- 민선(18:00~19:30)
- 5월 3일(수) □
- 제2주제: DMZ: 자연·인간·문화(08:30~12:20)  
사회: 이경재(서울시립대)  
발표 1. DMZ 자연생태계 실태분석과 보전: 김귀곤(서울대)  
발표 2. DMZ, 잃어버린 생활공간: 권승구(동국대)  
발표 3. DMZ와 불교문화 유산: 조유진(한국토지박물관)  
토론자: 신준환(산림과학원),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흥광보(동국대))
- 오찬(12:30~13:50)
- 제3주제: DMZ '세계유산' 지정과 생태평화특구 건설 (14:00~17:20)  
사회: 김 일 중(동국대)  
발표 1. DMZ의 '세계유산' 적 가치: 이혜은(동국대)  
발표 2. DMZ와 인접지역의 생태환경과 남북지역협력: 강양석(홍익대)  
발표 3. DMZ의 생태적 이용과 통동 후 베를린의 도시관리: 우베 라이엔(독일, 연방자연보전국)  
토론자: 이인규(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변병설(인하대), 허영복(경남대)
- 5월 4일(목) □
- 제4주제: DMZ와 한반도 평화체제(09:30~12:20)  
사회: 문정인(연세대)  
발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 고유환(동국대)  
발표 2.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협력: 스티브 스나이더(미국, 스탠포드대)  
발표 3. 한반도 평화와 NGOs: 오계식(성공회대 초빙교수)  
토론자: 유호열(고려대), 김철우(중앙일보), 구마오가 미치아(일본, 국제프론티어센터 대표)
- 오찬(12:30~13:50)
- 제5주제: DMZ, 한반도 분단에서 동북아 생태평화로 (14:00~16:00)  
사회: 정인영(서울대)  
발표 1. 동북아의 생태평화를 위한 과제: 최원(환경재단 대표)  
발표 2. 동북아 평화와 지역 협력의 정치경제: 와다 하루키(일본, 동경대)  
토론자: 고재영(환경부 정책실장), 장소명(중국, 북경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동대신문 창간 기념 '대중매체 선호도·동대신문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조선일보'와 '대학내일' 가장 선호해

## 동대신문 구독률 22% ... 실용성·홍보 강화로 독자참여 유도 숙제

본사는 지난 달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 동대신문 창간 56주년을 맞아 우리학교 통계·정보기술연구소에 의뢰해 각 단과대별로 학년·성별·인원 수에 비례하도록 할당추출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 409명(△2학년=126명, 30.8% △3학년=141명, 34.5% △4학년=142명, 34.7%)을 대상으로 대중매체 선호도와 동대신문 관심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 ▲우리학교 학생들의 대중매체 선호도

#### 1. 종합일간지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종합일간지로는 전체응답자의 23.5%의 학생들이 조선일보를 택해 가장 높았으며, '없다'는 의견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조선일보를 가장 많이 읽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4%가 '집에서 구독'하기에 많이 읽는다고 답변했다.

#### 2. 시사 잡지

시사 잡지 중 가장 많이 읽는 잡지로는 전체 응답자의 62.3%가 '없다'고 답변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시사 잡지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16.1%가 '한겨레 21'을 읽는다고 답변했다.

#### 3. 종합일간지와 차별되는 대학신문의 역할

종합일간지와 차별되는 대학신문의 역할로는 '학사, 취업정보제공'에 전체응답자 중 46.7%가 답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교 내 소식전달'이 31.5%로 그 뒤를 이었다.

### ▲동대신문 관심도

#### 1. 학교 내 배부되는 신문 선호도

35.2%의 학생들이 '대학 내일'을 가장 읽기 좋아한다고 꼽았으며, 동대신문을 즐겨 읽는다는 학생은 22%에 그쳤다. 동대신문 구독률은 지난 3년간 실시했던 동대신문 구독률 설문조사에서 2003년 50%, 2005년 23.74%로 해마다 구독률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동대신문 구독 빈도수

동대신문 구독 빈도수에는 '거의 보지 않는다'가 62.6%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에 1~2번 본다'는 의견은 24%였다.

동대신문을 읽는 목적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본다'에 56.6%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답변했고, '일부러 가져다 읽는다'는 학생은 16.4%에 그쳤다.

동대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이유에는 구독하지 하지 않는 학생 중 '동대신문에 관심 없음'에 48.8%가 응답했으며, 신문을 보지 않는 기타의견으로는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와 '동대신문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다'고 3.9%의 학생들이 답변해 지난 2005년에 설문조사 결과 신문배부방식과 홍보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3. 독자 관심도

가장 흥미 있게 보는 기사에 대해 동대신문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 중 34.2%의 학생들이 '학교행사'라고 응답했고, 그 뒤로 '특별히 보는 것 없음'(13.8%), '취업관련기사'(12.5%)가 뒤를 이었다. 학생들의 취업과 학사 일정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의 비중을 늘려 독자들의 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독자 참여도

동대신문 여론면에 기고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1.5%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동대신문에 기고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한 동대신문 독자 참여부분 설문조사 결과 4.04%보다 더 떨어진 수치로, 앞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면에 글을 기고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참여하게 된 경로에 대해 50%의 학생들이 '청탁을 받아서' 참여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50%중 '독자투고란을 보고'에 응답한 학생들은 33.3%였다. 여론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관심 없다'가 54.7%를 차지했고, 21.8%학생들은 '독자참여란 모름'이라 답해 독자들의 관심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여코너에 대한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 5. 동대신문 홈페이지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2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14.14%보다는 상승한 수치이지만, 아직도 신문을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주로 학교 내 배치된 신문을 통해 동대신문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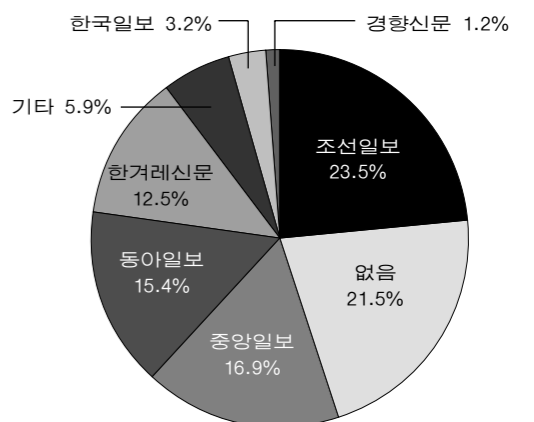
홈페이지 접속 경로는 '학교 홈페이지링크'가 81.3%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홈페이지 만족도에 관해서는 68.8%가 '보통'이라 답했고, 홈페이지에 새로 추가·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27.7%가 '각종 정보 제공'이라 답했다. 그 뒤로 '업데이트의 신속성'(22.2%), '디자인'(13.6%)이 뒤를 이었다.

그 밖의 건의 사항으로는 '동대신문을 각 건물 입구마다 배치해 달라'와 '동대신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해 달라'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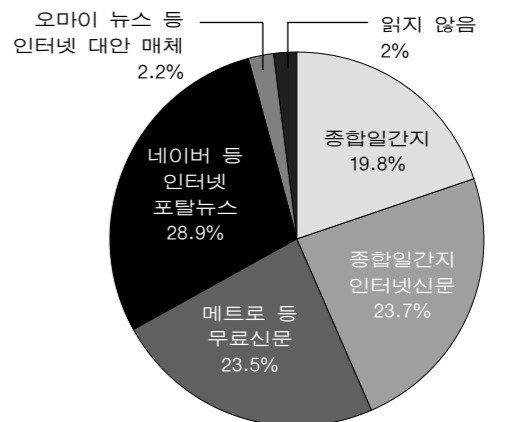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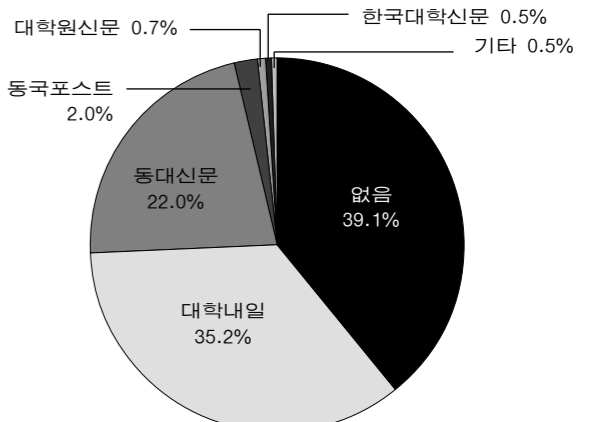
### ■ 많이 읽는 종합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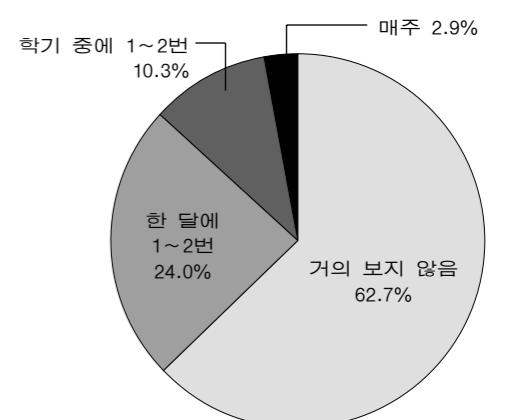
### ■ 많이 읽는 매체



### ■ 가장 많이 읽는 학내 신문



### ■ 동대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 결에서 본 동대신문 기자의 일주일

# “감동 전하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V동 동대신문사. 내 친구이자 학생기자인 동국이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이곳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문을 들어서자 주간실·행정실이 보이고 반대편으로는 회의실, 신문편집실이 자리하고 있다. 평소 대화하던 강의실과는 사뭇 달라서 어색하기만 하다.

지금 회의실 안에서는 국부장단이 한 데 모여 1차 편집회의가 진행 중이고 곧이어 취재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주 신문의 각 면별 아이템과 세부 기사를 확정짓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대수까지 기입하다보니 어느새 편집회의 특이 냄새가 들어왔다.

취재회의에서는 기자들이 취재해 온 각자의 출입처의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보도면의 가닥이 잡혔다. 전달에는 주체평가와 지면 평가를 했고, 앞으로도 주중에 취재회의와 아이템회의, 2차 편집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수요일. 외부 취재를 나간다는 친구를 따라 나섰다. 친구는 기자수첩과 카메라를 꼼꼼히 체크한 뒤 취재 시간이 임박했다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커다란 카메라 가방을 메고도 어느덧 저만치 앞서 가 있어, 나는 헬레벌떡 그 뒤를 쫓기에 바쁘다. 어느덧 기자회견장에 도착해서 여러 일간지 기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셔터를 눌러대더니 한 가지라도 놓칠 새라 귀를 쫑긋 새우며

수첩에 바빠 적어간다.

어느새 벌써 금요일이다. 오늘은 기사 마감 날이라 친구가 평소보다도 배로 더 분주하다. 미처 끝나지 못한 보충취재를 하기 위해 여러 출입처를 동분서주하고 때때로 전화취재를 하기도 한다. 어깨너머로 보이는 칠판에는 면별로 아이템, 필자, 매수 등 이번 주 편집계획이 쓰여 있는데, 꽤 여러 군데에서 친구의 이름이 눈에 띈다.

“타타타타 딸깍. 타타타타 타닥 딸깍 딸깍” 새벽에 잠깐 눈만 붙었다가 일어났다는 친구는 막바지 기사 쓰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기사가 마감된 후에는 빨간 색연필로 지난 신문

에 쓱쓱 레이프 그리더니 맥작업실로 향한다. 곧이어 전산편집 작업을 하는 분과 편집에 대해서 의견교류를 하며 작업한 신문 지면을 출력해 왔다. 이어 출력해온 지면에 기사 제목을 뽑고 오자를 보며 두번, 세번 수정해서 확인한 뒤에는 최종 책임자인 주간교수님이 확인을 하신다. 드디어 주간교수님의 O.K사인이 떨어진 지면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모두가 한 면씩 이루어지다 보니 신문편집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다.

시간이 훌쩍 지나간 일요일 아침. 드디어 조판 작업이 끝났다. 전달에 이어 하룻밤을 꼬박 새고 빨강계 총혈 된 친구의 눈이 그간 쌓인 피로를 말해준다. 하지만 내일 오후 잉크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신문을 받아보면 또 한 주를 이겨낼 에너지를 얻는다고 밝게 웃는 친구. 그러한 친구의 모습에서 그간 내가 있고 지낸 열정이 묻어난다. 그리고 그 순간 얼마 전 읽었던 '나는 감동을 전하는 기자이고 싶다'라는 책의 글귀가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지나간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동국 건학100주년!

## 새로운 동국역사의 창조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후배사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동국대학교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과 21세기 비전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전하는 리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리더— 이들이 바로 동국의 희망입니다. 후배사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 발전기금 참여 및 문의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  
(02-2260-3300, 3794~5)

#### 기부참여방법

- 월납, 분할납부로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 월3만원×100회(8년) 약정시 =3,000,000원
- 월5만원×60회(5년) 약정시 =3,000,000원
- 기타 금액, 일시납부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동국대학교
- \* 조흥은행 313-03-002943 \* 농협 360-17-003822
- \* 국민은행 068-01-0373-353 \* 제일은행 107-10-119210

#### ■ 자동이체(CMS)납부

- CMS는 은행에 직접까지 않아도 약정하신 분의 지정계좌에서 학교로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매월1일, 18일중 택일)
- > 신청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전화 02-2260-3300, 3794~5)

등록금한번 더 내기에 참여하시면... 후원해주신 분의 동국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받들어 아름다운 이름으로 후학들과 모교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건학10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 보존하겠습니다.

# 우리는 동국가족

올해로 동국 건학 100주년입니다. 100년 동안 '동국'을 통해 맺어진 수많은 인연들의 이야기를 우리신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정겨운 인연들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소개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부 02-2260-3491 / dgupress@dongguk.edu

## 동국언론인회 활성화로 도약발전만들고

21세기는 네트워크 시대이다.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컴퓨터를 매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공간.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바로 기자들이 있다. 사회의 중심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보도하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기홍 동문(국문88졸)을 만나 그가 말하는 '우리학교'에 대해 들어왔다.

정보통신부와 출판협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자로 활동해왔고, 한국기자협회 서울신문 지회장을 맡아 활동하며 기자로서의 시간을 보낸 지 어느덧 18년. 현재 그는 서울신문 편집국 산업부 차장을 맡고 있다.

문병호 회장을 필두로 300여명의 우리학교 출신 언론인들로 구성된 '동국언론인회'에서 2003년부터 총무로 활동하면서 계산고시학사에 언론사준비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후배 언론인 양성에 힘써온 것이다.

요즘 동국 언론인회 활동이 어떤지 묻자 "전에는 매달 활발히 모임을 가지곤 했는데 요즘엔 언론근무 환경이 나빠지고, 시간에 쫓겨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하는 정기홍 동문. 동국언론인회 모임이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그의 말투에서 진심어린 학교 사랑이 묻어났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학교에 대해 "정체를 뛰어넘어 100주년을 계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동문간의 홍보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이제부터는 언론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과 학교 간에 그동안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교와 동문간에 유기적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기홍 동문.

취재와 마감에 시달리는 기자의 특성상 하루 24시간을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사는 그이지만, 늘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학생들의 글을 살펴본다는 그는 "재학생들 중 일부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글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동국인은 동국대의 얼굴이자 원동력을 잠시 잊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에게 그의 학교 사랑은 하나의 자극제가 된다.

여전히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일과 학업을 충

실히 하나가는 후배 동국인들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간다는 정기홍 동문. 정기홍 동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는 '학교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이 없다면 이러한 충고와 조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됐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이 무수히 쏟아지는 현대의 네트워크 사회의 중심에 우리학교가 설 수 있도록 재직질과 조언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같은 동문이 있기에 우리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이야기 동국 100년

### 불교 교육 체제 일원화

#### ⑤ 불교중앙학림 시대1



중앙학림시절의 졸업증서.

일본불교와의 연합을 꾀했던 일부 불교계 인사들은 총독부의 사찰령을 수용하였지만, 개혁세력은 이들을 통렬히 비판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였다. 일제에 예측되어 가는 한국 불교에 대한 혁신은 비단 젊은 층만의 요구는 아니었다. 특히 불교전문교육기관의 설립만큼은 보수적 인사들조차 절실히 요구하고 있던 문제였다. 전문교육기관 설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불교고등강숙이 문을 닫은 직후인 1914년 가을부터였다.

이듬해 1월 '30본산 주지회의원'이 해체되고 '30본산 연합사무소'가 발족된다. 이때 연합사무소의 운영규칙을 명시한 연합제규(聯合制規)가 만들어졌는데, 이 제규에는 서울에 중앙학림을 설치하고 본사와 말사에 지방학림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연합제규에 따라 30본산 연합사무소는 서울에 불교중앙학림(佛敎中央學林)을 설립하였고, 지방에는 불교지방학림과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불교 교육체제가 보통학교→불교지방학림→불교중앙학림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불교중앙학림은 원흥사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조선총독부가 송일동 북관왕묘(北關王廟:1883년 고종이 세운 관우의 사당으로 현 해화동에 있음)터의 임대를 승인함에 따라 학교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각 사찰의 출자가 이루어지고 학교 위치가 확정되면서 조선총독부는 1915년 11월 5일 중앙학림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중앙학림에는 분과와 예과가 있었으며, 부속기관으로는 기숙사에 해당하는 기숙료(寄宿寮)와 보건소에 해당하는 교의(校醫)가 있었다. 학생 수는 120명이었고 수업연한은 예과가 1년, 본과가 3년이었다. 또 교과목 및 교과과정은 일반교양과목과 불교학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다. 예과 1·2학년의 경우 매주 30시간의 교육을 받았고, 3학년은 28시간을 배정하였다. 또 매 학년을 3학기제로 운영하였다.

학칙에는 1916년 4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록을 살펴볼 때 이미 1915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여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신문기사에 실린 중앙학림의 모습을 보면,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높다란 층계가 연이어 있었다. 또 층계 위에 위치한 교무실을 중심으로 층계 좌측에는 기숙사, 우측에 강의실이 있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오전 7시에 좌선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 '동국문학'이 한 곳에 모인다

### 100주년 시화전 오는 26일 시작 ... 출판작은 디지털 책 '터닝 더 페이지'로 제작

한용운, 신석정, 서정주, 정지용, 조지훈, 신경림, 조정래, 황석영, 문정희, 정재봉, 피천득... 손으로 꼽기도 벅찬 이 이름들은 '동국문학이 곧 한국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든 동국문학의 봉우리들이다. 이 봉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을 이룬다.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시화전'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주간 서울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여기서는 현역시인, 작곡시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학교가 배출한 문학의 인재들과 우리학교의 교·강사 등 우리학교를 거쳐 간 문학인 50여 명의 주요 작품 120여 편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시, 산문과 함께 우리학교 미술학부의 교수, 명예교수, 동문들의 전통적인 한국

화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분사 주간 윤재웅(국어교육학) 교수는 "동국 100년의 역사에서 불교와 문학은 가장 두드러진 학문분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화전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동국문학을 재조명해보는 의미를 갖는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시화전'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번 시화전의 출판작을 판매한 수익금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시화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터닝 더 페이지(Turning The Pages)'에 쓰인다. '터닝 더 페이지'는 40인치 모니터에 책을 펼

친 모양으로 화면이 떠, 보는 사람이 손을 가져다 대는 것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는 디지털 상의 책이다.

화면상으로 보는 것 외에도 방송 성우와 우리학교 재학생의 목소리로 시낭송을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이는 우선 도서관 로비에 설치되며, '터닝 더 페이지' 설치 및 시연회'는 다음달 12일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시화전'은 지금까지 한국문학을 대표해왔던 동국문학을 살펴보고, 재도약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와 같이, 학생들을 비롯한 동국 구성원들이 '동국의 문학'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행사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 2006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 교육대상(대학 직장에비군에 편성된 자)
  - 가. 지역 1~6년차 예비군(2005~2000년 전역자)
- 교육대상 제외자
  - 가. 2006년도 전역자
  - 나. 1999년도 12.31일 이전 전역자(지역 7~8년차 이상 예비군)
- 교육훈련 일정/장소
  - 가. 훈련시간 : 향방기본8시간/56사단 219연대 종로·중구훈련장
- 복 장 : 예비군복(전투복, 전투화, 고무화, 고무신, 허리띠)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일자	5.9(화)	5.10(수)	5.11(목)	5.12(금)	6.5(월)	6.7(수)	6.8(목)

훈련 대상은 현재 학업편성 및 부대와 협조가 완료되지 않아 대대단위로 일정을 확정하여 추후 학교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공지사항 공통부부와 학생상담/도서관, 각 건물 벽보판에 게시(4월 예정)할 예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열람 또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휴대품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 유의 사항
    - 가. 구파발 전철역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 34 버스대기 - 07:00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버스 탑승 (지연 도착차 버스지연 불가)
    - 나.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안내) - 08:00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 (위병소 통제)
    - 다. 예비군복종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라.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가급적 삼가

동국대학교직장에비군연대 (예비군 연대본부 연락처 : ☎ 2260 - 3073~4)

## 이동 병무상담실 개설운영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우리학교를 방문하여 2006년도 새롭게 바뀐 병역제도 및 군 입대를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직접(대면)상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년 4월 26(수) 14:00 ~ 17:30
- 장 소 : 중앙 도서관 현관(2층) 로비
- 상 담 원 : 서울 지방병무청 공보실 직원 2명

\*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비군 연대본부 (2260-3074)로 연락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직장에비군 연대

## 도서 특별할인 판매행사 안내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법인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K'BOOK 플러스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 기 간 : 2006. 4. 3(월) ~ 4. 15(토)
- 장 소 : 상륙인 앞
- 판매도서 : 베스트셀러, 권장도서(대학생), 근원지 기획전, 아동도서 등
- 균 일 가 : 500원 ~ 3,000원 / 시간 20% 할인
- 문의전화 : 02-2260-8956(구내서점)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생협 창립 2주년 경품 추첨 안내

- 추첨일자 : 2006. 4. 12(수), 오후 3시
- 추첨장소 : 다량관 휴게실
- 경품내역

구분	경품 내역	대상	협찬
1등	실크로드 불교문화유적답사 무료여행권	2명	생협 교내여행사
2등	일본 배낭 무료여행권(4박5일)	2명	조흥은행 동국대(출)
3등	복사카드 5,000원권 10매	10명	복사실
4등	1만원 할인권 2매	20명	안경원
	동국 가방	50명	잡화점
	매장이용 10,000원권	10명	컴퓨터
5등	명함 무료제작	20명	기획사
	증명사진 촬영권	10명	사진관
	매장이용 5,000원권	20명	동국관 문구점

\* 3등 이상은 조합원에 한합니다.

4. 당첨자확인 : 생활홈페이지(http://dgcoop.dongguk.ac.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합원모집 : 생활사무국(해화관1층)

6. 조합원혜택 : 문화유적답사 참가 자격부여, 한가위 귀환버스 할인, 서점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조합원혜택 제공

추첨행사에 조합원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4월)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 해당 대학/학과는 지정된 소정의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합니다.

- 접수 : 4. 10(월) ~ 4. 12(수) 24:00까지
-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접수증 출력 - 응시료 입금
- 시험 : 2006. 4. 22(토) 10:00 ~ 12:30 (해화관 2층, 동국관(M) 3층)
- 대상 : 졸업대상자 중 영어PASS제 미취득자
- 응시료 : 5,000원
- 입금마감일 : 2006. 4. 12(수)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 조흥 371-03-012083(국제교육원)
- 접수 주의사항(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취소 가능)
  - 가. 학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한정부에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시 본인인물, 학번 또는 학과 표기**; 예, 홍길동 2025123)
  - 다. 기 패스자 및 미입금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 문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60-3471, 3590)
- 시험 주의사항 :
  - 가. 9시 45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교육원

# 열린글터

## 천사의 언어 수화와 친구되기

우리는 건강한 목과 귀를 가지고 즐거운 음악을 듣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또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을 상상해 보았는가?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았는가? 모두들 끔찍한 생각이며 의사소통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누구나 혀와 성대를 가지고 있으며 목젖을 울려 소리를 만들어 내어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지극히 정상적이며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상상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 매우 편리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가령, 매우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10m밖에 있는 친구에게 '지금 시간이 몇 시지?'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아

니면 유리문이 닫혀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데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목이 아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것일까? 이것들은 모두 말과 목소리만 가지고는 제약을 많이 받으며,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것들은 또한 모두 가능한 것들이기도 하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 또한 포함되며 우리 모두 마음만 먹는다면 포함될 수 있다. 그들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며, 심지어는 들리지도 않는 노래를 하기도 한다.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무척이나 쉬운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자신이 직접 한다면 매우 표현의 자유를 체험해 볼 수도 있고, 표현력 또한 풍부해질 수도 있다. 소리가 없는 대화, 이 얼마나 매력적인 특징인가.

이민필(문과대 영문2)

“한 끼 식사로 ‘사람’을 얻어갈 수 있잖아!”

그렇다. 대학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만남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매일 거르지 않는 ‘일상의 식사’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도 새로운 만남이 될 수 있다.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새내기에게 선배라는 든든한 응원군은 큰 힘이 된다. 어쩌면 새내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자. 지금 당장 선배를 찾아가서 말해야겠다.

“선배, 저 밥주세요.”  
그들도 왕년에 그러했듯이, 시작은 ‘밥’이다.

노애란(사과대1)

## 선배에게 다가가는 방법

일일 시트콤 ‘레인보우 로망스’의 한 장면에는, 전력을 다해 신입생들에게서 도망 다니는 선배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는 이렇게 외친 것이다. “06들이 무서워~이제 파산이야!”

어찌나 현실적이던지 보면서도 피식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난다.

대학 새내기로서 선배들과 친분을 쌓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한 끼 식사를 선배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 물론, 선배들에게는 약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실제로 3월에는 점심시간 즈음하여 학교실에서 선배들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던 날도 있었다.

겨울 방학 내내 비축해 두었던 알바 비용을 한 달 만에 밥값으로 써버렸다. 선배도 보았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매년 내 돈으로 배를 채워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파산 위기’가 다가왔고 결국 선배 한 분에게 긴급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대학의 밥문화’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사실 한편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이다. 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식사 자리를 챙기냐는 내 말에 선배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 학생식당도 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국대학교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교이다. 사실 불교종립학교가 맞고, 교내 곳곳이 불교종립학교임을 말해 주고 있다. 법당과, 불교 상징물도 있으며, 스님들도 계신다. 그런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불교의 색채가 없는 곳은 바로 식당이다.

교내 식당이 상록원, 그릴, 동국관 세 곳이 있지만 메뉴는 거의 고기류가 주를 이룬다. 하루라도 고기가 메뉴에서 제외된 날이 없다. 오히려 채식 메뉴가 포함된 날을 찾는 것이 더 빠르

다. 학생 식당에서 스님들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고기를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 참 불편해 보인다. 그렇다고 스님들과 채식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채식 식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채식 메뉴를 포함하면서도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채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기존의 식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하나로 통일하고 먹고 싶은 반찬을

식판에 덜어가는 방법이다.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만큼 음식을 가져왔으니 음식 쓰레기도 줄 것이고, 메뉴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셋째, 각 반찬의 가격을 책정한 후, 정반에 가져온 반찬만큼의 돈을 계산하는 것이다. 계산하는 분이 조금은 바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한 장점이 있다. 또한 학생 식당의 메뉴를 알아보기 위해 샘플 앞에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식권을 사는 줄을 찾기 힘든 상황도 없어질 것이다.

건학 100주년 이후 더욱 발전된 학교와 더불어 학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학생식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조지수(사과대 광고3)

## 보리소

## 사랑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의 차이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면 덜 된 사람이면 대개의 사람들은 제 몸이 느끼기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제 곁을 떠나가려 하면 못내 아쉬워한다. 정 주고 인연 맺고 함께 하던 것들이 곁을 떠나려 하면 물건이었거나 사람이었거나 서운하고 허전하기엔 한가지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늘 이별하게 된 슬픈 인연의 원인은 어제의 즐거운 만남이고, 오늘 만남의 즐거움은 과거와의 슬픈 이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어제 만나 사랑했던 기쁨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이별하는 슬픔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제의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저 ‘출연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막연한 느낌과 이끌림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었다. 굳이 그것을 속명이나 운명이나 혹은 특별한 물건의 인연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의 종말 끝에 찾아온 슬픈 이

별의 원인 제공자가 자신이 아니라면 면책사유를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우리의 삶에는 정 반대의 느낌과 가치들이 손바닥의 앞뒤처럼 서로를 의지하여 동시에 나타나거나 이윤배반적 상황이 반복된다. 사랑은 증오가 되고, 친구는 원수가 되며, 배신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며, 결과가 성공하면 용기 있는 도전으로 평가받지만 실패한다면 오만과 망용으로 평가받는다. 그들은 항상 정반대의 극과 극을 달리지만 그림자처럼 함께 하고 있다.

동일률(同一律)이나 모순율(矛盾律), 그리고 배중률(排中律) 등의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진 우리로서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감정과 다양한 가치관들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금강경(金剛經)에서는 깨달음과 진리실현을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고 지칭한다. 본래의 진리는 깨달을 것도 설명할 것도 없으며,

붙잡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에 법(法)도 버려야 하고 법(法) 아닌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한다. 만물이 모양이나 빛깔이나 이름이 본래 있었겠는가. 사람이 저마다 이름을 지어 나누고 형상을 지어 분별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본래 제 것도 남의 것도 아닌 만물이 소유의 울타리를 치고 입맛에 맞는 것에 집착하고 사랑하고 원망하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과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생각해 본다. 아니 그 사랑과 원망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들에게 사랑과 원망의 본성(本性)이 있어서인가, 그들의 행(行)이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쳐서인가, 나의 출연한 느낌과 이끌림이 그들을 사랑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는지...

이 학 주 사범대학부속여고 교법사

## 학생논단

# ‘들이대는’ 언론 ‘즐기는’ 독자



서용근 The Dongguk Post 편집장 · 공과대 기계공3

“교내 언론사가 몇 개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신입생에게 해보았다. 후배가 이것저것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답은 틀렸다.

동국대 언론사는 총 4개로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DUBS 그리고 교지편집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영자신문사에 편집장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 “동국대에 영자신문사가 있는지 몰랐다. 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필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언론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비단 몇몇 학생들의 경우가 아니라 교내 언론 환경 전체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에 방송 뉴스에서 철학이나 사회주의 연구회 같은 운동권 동아리는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그에 비해 취업에 도움되는 영어 동아리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동아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대학교 영자신문사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다.

요즘에는 참된 언론을 꾸꾸고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신문사에 서로 지원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들의 선택에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것이 학내 언론의 위상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기자들도 모두 학생들이고 대학 언론의 제1의 독자도 물론 학생이다. 이렇게 교내 언론은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처럼 언론사들은 무관심에 고통을 받고 있다. 점점 학생기자 지원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의 관심도 예전만큼 높지 않다.

동국포스트에서는 독자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간단한 퍼즐을 제공한다. 이 퍼즐을 모두 완성시켜서 제출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소통

하기에 부족한 약 7명의 학생들만이 지원한다.

언론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과감하게 ‘들이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자기 신문이나 방송을 만들고 학생들이 알아서 보게 하였다. 이제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통하기 위해서 과감한 ‘노출’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이제 학생기자는 청년 정신으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한 예로 중앙대학교는 교내 모든 언론사를 한 데 모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작게는 홈페이지부터 크게는 소재와 기회를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학생들도 언론사가 ‘부담스럽게 들이대도’ 즐겨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노력하는 지 한번만 더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이번 5월 8일은 동국대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는 날이다. 100주년을 발판으로 ‘들이대는’ 언론사와 ‘즐기는’ 독자’들이 학교를 새롭게 바꾸어 보자.

## 독자 사진첩

### 이놈 말쑤야 ...

한번 재미있게 놀아 보실리우? 팔정도에 다양한 출사위가 흐드러지게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탈의 얼굴들은 동국인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땀방울을 흘립니다.

- 민속극연구회 '탈'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동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내 소식 알차게 담아

지난호 동대신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기획 면에 있는 각 대학들의 멘토링에 대해 소개한 부분이었다. 얼마 전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멘토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어 좋았다.

동국영화에 대해 소개한 기사에서는 영화 면에서 폭넓게 기여하고 있는 감독과 배우 등 동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작품을 알려주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널리 알려진 동국영화인만을 알고 있는 이

가 많은 만큼, 익히 잘 알려진 많은 영화들에도 동국인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뿌듯했다.

또한 2면의 회전무대라는 코너에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친구와 이야기하듯 유머있게 풀어낸 부분은 재미있게 읽었다. 동국인이란 한 번쯤 겪어 봤을 여러 황당한 일들에 대해 꼬집어내어 공감할 수 있었다.

계획적인 시간 관리에 대해 조언하는 글도 빠지지 않고 기재하여 정성없이 사느라 잊었을 학기 초의 많은 다짐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한 부분도 유익했다. 한창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대해 ‘줄

다리기’라는 이름하에 소개해준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야기만 무성할 뿐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주어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자의 의견을 인용해 나열할 뿐 핵심적인 부분을 꼬집어 설명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웠다. 또 주변 글과는 상관없이 덩그러니 들어간 사진과 부연설명은 주제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고, 파트마다의 내용이 일관된 느낌이 적어 산만한 느낌이 들었다.

동국대학교의 이모저모에 대해 충실하게 담아 학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알차다. 앞으로도 알차고 충실한 정보들을 기대한다.

배은영(생자대 생화학2)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4/10)	콩나물국밥 (1800) 베이컨김치볶음밥 (2000) 닭도리탕 (2000)	부대찌개 (2000) 치킨탕수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원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얼무비빔밥 (3500)	건새우미역국 (2000) 수제돈가스정식 (2900) 닭도리탕 (2900)
화 (4/11)	우거지갈비탕 (2000) 돈육고구마강정 (2000) 하이라이스 (2000)	갈비경단(2000) 중국식볶음밥 (2000) 불고기 (2000)	원장찌개 (3200) 통태찌개 (3500) 제육볶음 (3500)	애호박고추장찌개 (2000) 치즈파스타(라면) (2900) 제육덮밥(김밥) (2900)
수 (4/12)	계란말이(백반) (2000) 불고기(말반) (2000) 오징어살추비빔밥 (2000)	짬뽕수제비 (2000) 제육비빔밥 (2000) 순대볶음 (2000)	원장찌개 (3200) 영양술밥 (3500) 자반구이 (3500)	조랭이떡만두국 (2300) 참치회덮밥 (2900) 돈갈비김치찌개 (2900)
목 (4/13)	닭개장 (2000) 치즈돈가스 (2500) 계란햄볶음밥 (1800)	김치만두국 (2000) 리조죽 (2000) 산채비빔밥 (2000)	원장찌개 (3200) 보쌈 (3800) 닭도리탕 (3500)	어묵매운탕 (2000) 볶음밥(시원탕수육) (2900) 알짜개 (2900)
금 (4/14)	참치회덮밥 (2000) 섭산적구이(백반) (2000) 쭈꾸미불고기 (2000)	장터국밥 (1800) 오징어볶음 (2000)	김치찌개 (3500) 카레라이스 (5000)	황태해장국 (2500) 불고기(야채비빔밥) (2900) 만두전골 (2900)

##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민평, 4대분량의 글 등을 여론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 E-mail [dgupress@dongguk.edu](mailto:dgupress@dongguk.edu)
- TEL 2260-3491 ~ 2
- FAX 2279-1270

대학생이 읽어야 할 고전 ④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과학의 발전은 축적이 아닌 혁명적인 것”

최초로 ‘패러다임’ 개념 제시 ... 역사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 영향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알려진 토머스 사뮤엘 쿤(1922-1996)은 그의 대표작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혁명, 패러다임, 정상과학 등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패러다임 이와 양립 불가능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되는 비축적적인 변화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이란 바로 이러한 정상과학을 특징지어 주는 개념으로서, 정상과학의 시기에 과학자 사회 전체에 공유된 이론, 법적, 지식, 방법과 가치관, 취향, 습관, 규범을 통틀어 폭넓게 지칭한다.

‘과학혁명’이란 이 같은 정상과학과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아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물리학 전공으로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한 쿤은 과학 연구 개발 연구소에서 2년간 일한 뒤, 모교 대학원 물리학과로 되돌아가 학위 과정을 밟는다.

책의 서문에서 술회하고 있듯이, 그는 비자연과학 계열 대상의 자연과학 개론 강의를 거들게 되면서 과학의 역사적 측면에 관하여 깊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과학사에 대한 쿤의 관심은 하버드 대학 ‘신진 연구원’ 기간과 과학사의 강사와 조교수 경력을 거치면서 과학 사상의 혁명적 변화들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업적으로 학문적 역량을 널리 인정받게 된 쿤은 1956년 버클리 대학으로 옮겨서 과학사 과정의 개설을 주도하게 된다.

그 시절 그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분야의 주제나 방법의 본질에 관한 논란이 빈번한 것에 충격을 받았고, 자연과학자들의 과학 활동에서 그런 종류의 근본적 문제들에 관한 논란이 덜하다는 사실과의 차이를 바로 과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쿤의 과학관은 20세기 현대사상 가운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심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이 됨으로써 광범위한 영역에서 ‘쿤 혁명’을 일으켰다.

그의 과학변천 및 발전에 관한 이론은 특히 과학철학 분야에서 심각한 논쟁을 유발시켰고,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사회과학 분야에 더욱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실증주의의 종말 이후, 쿤이 철학적 논쟁에 새로운 초점을 제공하여, 급진과학운동 및 서구과학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비판의 대부분을 주변화 하기가 용이해졌다.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인문학과 사회학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과학적인 사상이 현대의 사회전반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은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현대를 사는 지식인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민준 객원기자 manmulbaks@hanmail.net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사랑긋 1

김 초 혜

그대 내게 오지 않음은 만남이 싫어 아니라 떠남을 두려워함인 것을 압니다

나의 눈물이 당신인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감추어 두는 숨은 뜻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화염(火焰) 때문임을 압니다

곁에 있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보내는 아픔이 더 크기에 그렇고 사느 사랑의 혹법(酷法)을 압니다

두 마음이 맞바치어 모든 것 되어도 갖고 싶어 갖지 않는 사랑의 보(襟)를 묶을 줄 압니다.

- 사랑긋 1 (문학세계사, 1985)

사랑의 계절이 돌아왔다. 봄과 나비가 날고, 온갖 꽃들이 능열한 자태로 유혹하는 봄이 돌아왔다.

생로병사의 비밀이 하나 둘 벗겨지듯이, 사랑의 비밀도 몇 퍼센트의 호르몬 작용으로 밝혀질 지 모른다.

잡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의,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 사랑만큼 인간의 복잡 미묘한 심리와 정황을 경험하게 한 것도 없다.

위 시 1, 2연에서, ‘그대와 나’는 너무도 사랑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고 가슴에 품어 둘 뿐이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이 두렵고, 사랑의 화염으로 타버릴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갖지 않는 사랑이 갖는 사랑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 변하는 역설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동국 시문학의 바다에 허다한 시인들이 많지만 김초혜 시인만큼 사랑의 불길감을 인쇄하며 더 큰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의 시인도 드물다.

강 상 윤 시인,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연구소를 찾아서 - ④ 교육연구원

연수 지원 · 매체제작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담당

신입생들은 행정지원실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해 낯선 학교생활에 익숙해진다.

신입교수에 대한 예비교육은 물론, 교수학습개발, 교육매체제작, 교육개선을 위한 개발연구 등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원장=박명희=가정교육)이다.

교육연수의 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개발부에서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삼성전자와 산학협동으로 미래 소비자의 동향에 대한 연구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외국의 저명한 교수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열거나, 국내외 대학 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적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교육매체센터에서는 강의에 필요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주거나, 각종 교육 자료를 대여해 주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인상 깊었던 명강의에 대한 감상문을 모집하여, 우수교수를 시상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연구원에서는 편지위원회 조상식 교수의 지휘아래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한국교육문제 연구’라는 논문집을 발간하고



올해 1월에 발간된 17집 논문집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와 교수의 특성들을 분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민준 객원기자 manmulbaks@hanmail.net

KAPLAN과 함께 하는 iBT TOEFL 대학특강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은 봄학기 맞이하여 ‘중앙일보에듀라인 카플란어학원’과 함께 변화하는 TOEFL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iBT TOEFL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각 색연필로 실제 test와 같은 형태의 진행으로 변화된 iBT TOEFL을 느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simulation test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 일시: 2006년 4월 13일 목요일 오후 4:00
장소: 동국대학교 다량관 세미나실
대상: 대학생 및 iBT TOEFL 준비생
연사: Ellen Kim (iBT TOEFL 강사), 정승미 (iBT TOEFL 강사), 김미정 (iBT TOEFL 강사)

예약: 예약자가 많은 관계로 반드시 카플란어학원 홈페이지 지 설명회 바로가기에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Tel) 02-3444-1230 E-mail) kaplan@jins.com

위치: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해화관 1층) 카플란어학원(강남역 1번출구 바로 옆 7, 17, 18층)

\* 자세한 교통편 및 약도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국제교육원

제13회 에코포럼 정례세미나 개최

자원순환형 사회는 자연생태계의 조화로운 사이클을 인간사회 시스템에 적용시켜 보려는 노력으로,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을 억제하고, 폐기를 자원의 재생을 통하여 인간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정책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되었습니다.

일시: 2006년 4월 21일(금요일) 오후 3:00 ~ 오후 6:00

장소: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세미나3

주최: 에코포럼

주관: 동국대학교 부설 생태환경연구소

주제: 지속가능발전과 자원순환형사회

좌장: 권태준 (에코포럼 공동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발표: 전병성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주제: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정책방향
박종우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주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토론: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광민 (한국환경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문의: 전화) 02-2264-3681, 팩스) 02-2264-3682
이메일: ecoforum@dongguk.edu

생태환경연구센터 www.eco-forum.or.kr

제1회 법과대학 명사초청 특강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법과대학에서는 학기중 법조계 및 사회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법학 또는 사회의 주요현안과 관련된 주제의 특강을 개최합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일시: 2006년 4월 25일(화) 오후5시

장소: 문화관 예술극장

강사: 고승덕 변호사

사법시험 최연소, 외무고시 차석, 행정고시 수석 합격

미국 4개주 변호사 자격 보유

문의처: 법과대학 행정지원실(만해관 1층)

02-2260-3225

법과대학

4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4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독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일정: 4월 26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진행: 불교문화연구원 서재영 연구교수
신청: 무소유 / 법정스님 저음, 범우사, 1998
정원: 10명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관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여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 달하나 천강에

## 봄이 오는 길목에서



조용길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겨우내 어두웠던 대지(大地)가, 한껏 날개를 활짝펴고 산수유 개나리의 섨노란 색깔이며, 진달래의 핑크빛 아름다움이며, 백목련꽃의 우유향하며 자목련의 고귀한 자태등이 서로 앞 다투어 대자연과 산야를 더욱 더 다양하고 살맛이 나는 봄으로 채색하고있다.

곧이어 봄꽃의 화사함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아름다운것은 새순, 새싹들이 말없이 저 푸른 창공의 태양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삭막한 세계를 연초록·진초록으로 바꿔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네 인간은 자연의 대조화를 잊어서는 안된다.

자연! 말없는 자연은,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며 생명의 창조를 대가없이 무주상(無住相)으로 널리 보시(布施)하고 있는 끝없는 무량공덕의 관세음이며 지장보살이다. 여기에는 차별도 없고 우열의 업신여김도 없다.

우리 민족은 본래부터 이러한 산천경계를 좋아하는 정감이 넘치는 민족이며 눈물도 많은 속성이 깊은 민족이었으나 어

느릿 정지적차별이나 우열적 선·악론쟁으로 굵고 맑고 밝은, 본래의 천진무구한 심성(心性)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명예욕에 출세욕에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픈, 잘못된 사회환경으로 떨어져 있는 듯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기네 종교가 아니면 저주하고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식의 전근대적이고 질떨어진 사고방식은 우리사회가 보다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고쳐야 할 버릇(業業kama)중의 하나이다.

칭찬하고, 덕담하고, 남을 위해 축원하는 생명의 천만분지 일일지라도 좋은 일에 그 마음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사회, 타종교나 타종교인이나, 낯길이나 색깔을

불문하고 다 모인 자연이 아름답듯이 출세한사람, 돈많은 사람, 권력있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세상이 모여 사회가 된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슈퍼볼MVP '하인즈 워드'의 출세나 그 노력도 칭찬하고 돋보일 일이지만, 수많은 혼혈의 고통과 고뇌에 버림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아니 입신여김을 하고 있는 우리네의 잘못된 심성의 뒤안길을 반성하고 참회(懺悔)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고 덕담과 축원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가! 서로의 단점을 감싸안고 장점을 칭찬하고 잘못된 은근히 지적하여 서

로가 큰 상처 받지 않게하는 것, 그것이 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세계가 아닌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자기네만의, 자기만의, 이기적 잣대로 상대방을 때도하고 어거지 논쟁으로 괜히 실없는 시간만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것이다.

본성으로 티없이 밝게 보는 '지혜의 눈' 그것이 대학이라는 상아탑의 진정한 모습이다. 본능적 욕구 욕망에 끌려 다니는 인위조작은 언제나 쓰디쓴 인과응보를 불러오는 것이 천지자연, 인간사회의 법칙이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여야!' 하는 법정스님의 수상집 제목을 떠올려 본다.

# 이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제8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 ... 남성 참여 유도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야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성적 구별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아담과 이브. 선악과를 나눠 먹은 그들의 몸을 가리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기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지금의 우리 역시 타인이 읽는 시선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특히나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굴레' 안에서 끊임없이 속박을 당한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8회 서울여성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이브가 외치는 그 당당한 목소리에 귀기울여보자.

지난 6일 여성영화제의 개막과 동시에 9일간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여성 영화제는 크게 △새로운 물결 △아프리카 특별전 △페미니스트 다큐멘터리의 선구자들 △감독특별전 △여성영상공동체 △한국영화특별전 △아시아 단편 경선 등 7개 섹션으로 나뉘며 '일상의 바다를 항해하다'라는 주제로 총 33개국 97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혜경 집행위원장은 개막선언에서 "첫 회 때 여성영화제를 관객 여러분에게 바치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관객의 사랑을 먹고 큰 영화제를 세계적으로 성장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영화제는 매년 자원 활동가들이 영화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자원활동팀장 강정인 씨는 "영화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자원활동가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막작이 시작되고 스크린에 나타난 아프리카 중서부 카메룬의 한 법정. '법조계의 여인들'은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전통적인 아프리카 무슬림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을 깨우치고 개혁을 이끌어 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폭행, 폭언, 강제성추행을 일삼고도 피

고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뻔뻔하기 그지없다. 남편을 법정에서 세우기조차 주저하던 그녀들이 '남자들이 그렇죠. 결혼은 안한 채 여기저기 애만 만들거든요', '이제는 잘못 삼킨 커다란 뼈가 목구멍에서 사라진 느낌이에요'라며 당당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관객들은 함께 웃고 웃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이번 영화제에 '내 남자의 유희기한'을 출품한 도리스 뒤리 감독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감독은 "직장과 가정에서 슈퍼우먼이 된 여성들이 중요한 것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남녀가 같이 고민해서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여성'이라는 코드로 세상을 읽어내는 영화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여성영화제.

이와 관련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학교 유지나(영화영상학) 교수는 "우리가 일반 상업극장에서 보는 영화와 다르게 여성의 관점과 여성 자체를 주체적으로 재현해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안성기 씨는 "더 이상 여성들이 마이너리티 감정을 가지고 낯선 외곽에서 그들만의 장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회 여성영화제에서 관객의 88%가 여성이었던 만큼 '소수 여성들만의 행사'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여성영화제가 꾸준히 해결해가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이

혜경 집행위원장은 "오히려 여성들이 축제를 즐기고 남성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좋다고 본다"며 동시에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시선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여성영화제가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취업지원센터 활용Tip

## 취업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관문인 · 적성검사 대비법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237개사 중 42.6%(101개사)가 채용 시 인 ·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 ·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78.2%는 '인 · 적성검사가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 했다.

기업들이 인 ·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업은 서류전형이나 면접 전형으로는 알기 어려운 지원자의 성품이나 기본자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 ·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무수행능력, 직무적성검사 등을 통해서 구직자의 능력, 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나 조직과의 적합성, 지원 직무와의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고, 다차원적으로 구직자를 점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인 · 적성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인 · 적성검사는 어떻게 구성돼 하나? 어떤 기업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의뢰하기도 해 유형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인성, 직무능력, 적응 적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인성부분은 근면성, 책임감, 사회성, 추진력, 인내성, 설득력, 집중력, 신뢰성 등을 검사하고, 직무능력은 판단능력, 창조능력, 수리능력, 이해능력 등을, 적응적성은 사무, 영업, 기술, 조사, 생산, 전산 업무에 관해 검사한다.

인 · 적성검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첫째, 이해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 · 적성검사는 수리, 언어, 추리, 지각력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요구하는 테스트이지 결코 암기식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자신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기업들이 인 ·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면 인 · 적성검사에 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 · 적성검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각 기업에서 자체적인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미리 파악한다면 검사에 유리할 것이다. 넷째, 응답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항수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한 후 문제를 풀 여유가 없다.

인 · 적성검사에 대해 조언한다면? 직무능력이나 사회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인 · 적성검사는 답변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거짓으로 대답하게 되면 일관성을 잃게 되고 이것은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된다. 기업들이 인 ·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의 문화 및 직무와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원한 기업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특징과 해당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사전 이해를 통해 인 · 적성 검사를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박 선 희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상담원

### ● 직무적성검사 실시 안내 ●

- ◇ 실시시기 : 년 4회 (상반기 - 3,5월 / 하반기 - 9,11월)
- ◇ 대 상 : 취업 준비 중인 재학생/졸업생
- ◇ 비 용 : 무료(학교 전액 부담)
- ◇ 접수방법 및 공고 : 본교 홈페이지
- ◇ 위탁기관 : 검토 후 매년 다른 기관 선정